2차 딥시크 쇼크 기대감 확산

Hana China Weekly | 2026.1.16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딥시크(비상장): 올해 2월 코딩 능력 뛰어난 신규 모델 출시 예정

- 1/9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는 2월 중순 춘절 연휴 기간 전후로 차세대 플래그십 AI 모델인 'V4'를 출시할 계획. 딥시크 내부 테스트 결과 V4는 강력한 코드 생성 역량에 초점을 맞춰 개발해왔으며, Anthropic의 Claude 및 OpenAI의 GPT 시리즈 대비 코딩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대규모 및 장문 코드 프롬프트 처리 능력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

- 딥시크의 신규 모델 출시 예정 소식과 더불어 최근 중국 AI 모델 스타트업들의 IPO가 연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AI 소프트웨어 테마주 전반으로 센티먼트 크게 개선. 콰이쇼우(1024.HK)/메이투(1357.HK) 주가는 1/12~1/16 기간 동안 각각 6.5%/12.5% 상승하며 강한 상승세 시현.

전기차: 유럽과의 수출 협의로 2026~28년 EU 수출 연평균 약 20% 성장 전망

- 1/12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과 중국산 전기차의 EU로의 수출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EU가 중국 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최소 가격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2024년 EU가 중국 전기차 수입에 부과한 최대 35.3%의 관세 철폐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 CPCA는 이번 관세 합의로 2026~2028년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이 연평균 약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6년 중국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1,900만대(YoY +15.2%)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025년 NEV 판매량 1,649만대(YoY +28.2%) 대비 둔화된 수치이나, 절대 판매 규모는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샤오미(1810.HK): 지난 12월 월간 인도량 사상 최고치 경신

- 샤오미 EV는 주력 SUV 모델 YU7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25년 12월 월간 인도량 사상 최고치를 경신. 샤오미는 12월 한 달간 총 50,212대(YoY +95%, MoM +8.57%)를 인도해, 기존 최고치였던 10월의 48,654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 또한, 1/15 샤오미는 경쟁 심화 속에서 자사의 인기 전기 SUV인 YU7 전 트림에 대해 7년 장기 저금리 금융 인센티브를 제도를 도입. 이는 이달 초 경쟁사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초장기 저금리 할부를 발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추정.

플랫폼/테크

딥시크(비상장): 춘절 연휴 우수한 성능을 갖춘 AI 모델 출시 예정

- 1/9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는 2월 중순(설날 연휴) 전후로 차세대 플래그십 AI 모델인 'V4'를 출시할 계획. 딥시크 내부 테스트 결과 V4는 강력한 코드 생성 역량에 초점을 맞춰 개발해왔으며, Anthropic의 Claude 및 OpenAI의 GPT 시리즈 대비 코딩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대규모 및 장문 코드 프롬프트 처리 능력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
- 연휴 전후로 발표될 딥시크의 신규 모델 출시 예정 소식과 더불어 최근 중국 AI 응용 기업들의 IPO가 연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중국 AI 산업의 수익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확산. 중국 AI 소프트웨어 테마주 전반으로 센티먼트 크게 개선. 콰이쇼우(1024.HK)/메이투(1357.HK) 주가는 1/12~1/16 기간 동안 각각 6.5%/12.5% 상승하며 강한 상승세 시현.

트립닷컴(9961.HK): 정부의 반독점법 조사에 급락

- 1/15 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트립닷컴, 씨트립 등 트립닷컴그룹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독점적 행위를 했다면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트립닷컴은 반독점 조사로 매출액 1%~10% 수준의 과징금 부과 우려가 확산. 1/15 트립닷컴 H주 주가는 19% 하락 마감했으며 통청여행(0780.HK)도 역시 동반 약세를 시현.

알리바바(9988.HK): Qwen 신규 기능 발표에도 서프라이즈 부재에 실망감 확산

- 알리바바는 산하 Qwen 모델의 2025년 12월 다운로드 수 급증과 2H25 누적 다운로드 수(7억회)가 META를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더불어 제프리스가 1/14 추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2026년 중국 AI 클라우드 매출 증가분의 80%를 차지할 전망. Qwen 모델 및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1/14 알리바바 주가는 3.2% 상승 마감.
- 1/15 첸원(Qwen) 앱은 타오바오, 알리페이, 타오바오 즉시배송, 페이주, 가오더 지도 등 알리바바 생태계 전반과 전면 연동했다고 발표. 이를 통해 외식 주문, 상품 구매, 항공권 예약 등 AI 쇼핑 기능을 글로벌 최초로 구현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테스트를 개방. 앞서 구글 또한 월마트 등 소매업체와의 AI 쇼핑 협력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실제 서비스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 다만, 신규 기능 발표 이후 서프라이즈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며 주가 조정. 1/15 알리바바 주가는 2.6% 하락.

메이퇀(3690.HK): 정부의 퀵커머스 경쟁 조사 착수, 경쟁 완화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 시현

- 1/10 중국 정부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보조금 난립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내권'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배달 플랫폼 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 배달 플랫폼들이 보조금 경쟁, 가격 덤핑, 유량(트래픽) 통제 등에 과도하게 매달리면서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산업 전반의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회 각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
- 중국 정부가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 현황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시장은 이번 조치를 출혈 경쟁 완화 및 산업 질서 정상화에 대한 정책 신호로 해석하며 주가 상승. 이에 따라 시장은 향후 무질서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고, 1위 사업자인 메이퇀의 수익성 정상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 발표 다음날인 1/12 메이퇀은 6.6% 상승 마감.

바이두(9988.HK): 홍콩을 메인보드로 전환한다는 루머 확산

- 1/14 블룸버그 따르면 바이두는 현재 홍콩의 2차 상장(Secondary listing) 지위를 1차 상장(Primary Listing)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확산. 다만 회사 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
- 1차 상장 전환 시 향후 후/선강통 편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토 자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 효과가 기대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환경에서 상장 구조의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AI: 중국 공업정보화부 AI 고도화 정책 발표

- 1/12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산업인터넷 플랫폼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2026~2028)>을 발표. 프로세스 자동화 어시스턴트, 스마트 점검 디지털 휴먼, Embodied AI 장비 등 자율 의사결정, 자율 실행, 자기 진화형 산업용 지능 에이전트 육성 추진. 산업 전 밸류체인에 AI 침투 가속화 전망.

Zhipu AI(2513.HK): DiDi와 MOU 체결, 신규 영상 AI 모델 공개

- 1/13 Zhipu AI는 DiDi(DIDIY.US)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양사는 AGI 핵심 기술 및 모빌리티 분야 내 AI Agent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
- 1/14 Zhipu는 신규 오픈소스 영상 'GLM-Image(신규 영상 AI 모델)'가 Huawei의 'Ascend Atlas 800T A2(AI 훈련 서버)' 서버 및 MindSpore A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소식에 기술 자립화 기대감이 강화. 중국 최초의 국산칩 기반 멀티모달 모델로 소개되었음.

미니맥스(0100.HK): 첫 상장 이후 109% 이상 상승 마감

- 1/9 중국 LLM 스타트업인 미니맥스는 홍콩거래소에 공식 상장, 1/9 미니맥스는 109.1% 상승 마감하며 시가총액이 약 2배로 확대. 미니맥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48억HKD를 조달했으며 하루 앞서 상장에 13% 상승에 그친 경쟁사 Zhipu AI를 큰 폭으로 상회.

앤트그룹(비상장): 구글 UCP 채택으로 AI 에이전트 도입 본격화

- 1/11 앤트그룹은 구글이 주도하는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Universal Commerce Protocol)'을 공식 채택한다고 밝힘. UCP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온라인 쇼핑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 표준(개방형)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서 AI 에이전트 도입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음. UCP 표준이 적용되면, 구글의 Gemini와 같은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쇼핑 의도를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 뒤, 사용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즉시 AI 대화 환경 내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완료할 수 있음.

반도체

반도체: 미 정부 H200 대중국 수출 규제 완화 공식화

- 1/13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H200 AI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향후 관련 거래는 미 상무부의 승인 및 안보 심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 또한, 미국 정부는 관련 거래에 대해 수수료 부과 방침을 도입할 계획.

기가디바이스(603986.SH): 홍콩 거래소에 공모가 최상단 162HKD로 상장 성공

- 기가디바이스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홍콩거래소 IPO 공모가를 162HKD 로 확정, 1/13일 공식 상장. 동사는 총 2,890만주의 H주를 발행했으며, 이번 공모가는 앞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132~162HKD)의 상단에 해당. 기가디바이스의 홍콩증시 상장은 중국 AI 및 반도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IPO 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인 홍콩 시장의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통푸마이크로(002156.SZ): 유상증자로 44억원 조달 예정

- 1/9 통푸마이크로는 공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총 44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발표. 메모리, 자동차, 고성능 컴퓨팅 및 통신 분야 등 다수 패키징 생산능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

입신정밀(002475.SZ): Wingtech 인도 자산 압류로 인수 계약 종료

- 아이폰 등 전자제품 위탁 생산 업체 입신정밀은 반도체 기업 인도 Wingtech가 보유한 사업 자산 인수를 위한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 계약 종료 배경으로는 인도 자산이 압류, 동결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입신정밀은 이미 지급한 인도 자산 대금 약 1.53억위안을 회수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제출했다고 보도.

소비

하이디라오(6862.HK): 창업자 복귀 소식에 강세

- 1/13 하이디라오는 장융 창업자가 4년만에 CEO로 재부임 소식에 1/14 주가 강세를 시현하며 9.2% 상승 마감.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석류 프로젝트(개별 브랜드가 독립적인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육성) 등 다각화 전략 실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귀주모태(600519.SH): 프리미엄 라인 일부 제품 가격 인하 결정

- 1/12 귀주모태는 플래그십 프리미엄 라인 제품의 출고가를 3년 만에 인하할 예정이며, 'Jingpin' 및 '15년' 시리즈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2,969에서 1,859위안으로, 5,399위안에서 3,409위안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해짐. 해당 제품의 출고가 인하는 채널과 시장 조건을 고려한 가격 개편 전략의 일환으로 수요 둔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 내 가격 차별화 재정렬을 위함으로 확인.

팝마트(9992.HK): Honor와의 IP 콜라보레이션 진행

- 1/12 팝마트는 스마트폰 기업 Honor와의 동사 IP 간 콜라보레이션을 추진 중이며, 양사의 협업 결과물인 'Honor 500' 스마트폰 모델은 1월 19일 공식 출시될 예정.

화웨이(비상장):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 복귀

- IDC의 2025년 연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스마트폰은 2025년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로 복귀. 2025년 연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상위 5개 브랜드는 화웨이, 애플, vivo, 샤오미, OPPO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HONOR는 상위 5위권에서 탈락.
- 2025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연간 출하량은 약 2억 8,500만 대(YoY -0.6%)로 감소. 메모리 가격이 향후에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며, IDC는 2026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비교적 뚜렷하게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

안타스포츠(2020.HK): PUMA 지분 29% 인수전 참여

- 1/8 중국 스포츠웨어 기업 안타스포츠는 프랑스 브랜드 PUMA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 현재 29% 지분 인수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협상 진행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Artemis는 주당 40유로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 양측의 평가 차이가 협상 정체의 요인 중 하나로으로 지적됨.

DreamSmart Group(비상장):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스마트폰 출시 취소

- 1/11 DreamSmart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사 스마트폰 브랜드 메이주의 Meizu 22 Air 출시를 취소. 해당 모델은 애플의 '아이폰 에어'와 유사한 초슬림 디자인의 전략 제품으로 기획됐던 모델. CFO는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라 제품 포트폴리오 축소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메이주는 향후 자원을 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 제품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발언.

전기차/자율주행

전기차: EU 관세 협상으로 2026~28년 유럽 수출 연평균 약 20% 성장 전망

- 1/12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과 중국산 전기차의 EU로의 수출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EU가 중국 자동차 수출업체에 대한 최소 가격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다만, EU가 2024년 중국 전기차 수입에 부과한 최대 35.3%의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음. 이번 EU와의 관세 협상으로 CPCA는 2026~2028년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이 연평균 약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향후 유럽 시장에서는 차별화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이 핵심 경쟁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전기차: 성장률은 둔화되나 절대적 판매량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14 CAAM(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6년 중국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1,900만대(YoY +15.2%)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025년 NEV 판매량 1,649만대(YoY +28.2%) 대비 성장률이 둔화되는 수치이나, 절대 판매 규모는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전기차: 중국 정부, 가격 경쟁 감독 강화 의지 재차 강조

- 1/14 발개위 등 3개 부처는 전기차 기업 좌담회를 공동 개최. 회의에서 정부는 무질서한 가격 전쟁을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 이는 경쟁 강화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해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 조치로, 업계에 공정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

자율주행: 상하이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계획 발표

-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상하이 고급 자율주행 선도구역 '모속지행(模速智行)' 행동계획>을 발표. 2027년까지 고도 자율주행 응용 시나리오의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차량용 고성능 AI 연산 칩, 차량 OS, 지능형 연산 플랫폼, 스티어-바이-와이어(선형 제어, 첨단 디지털 조향 시스템)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집중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샤오미(1810.HK): 지난 12월 월간 인도량 사상 최고치 경신

- 샤오미 EV는 주력 SUV 모델 YU7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25년 12월 월간 인도량 사상 최고치를 경신. 샤오미는 12월 한 달간 총 50,212대(YoY +95%, MoM +8.57%)를 인도해, 기존 최고치였던 10월의 48,654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
- 이에 더해 1/15 샤오미는 경쟁 심화 속에서 자사의 인기 전기 SUV인 YU7 전 트림에 대해 7년 장기 저금리 금융 인센티브를 도입. 이는 이달 초 경쟁사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초장기 저금리 할부를 발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추정.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YU7을 주문하는 중국 소비자는 최소 계약금 4.99만위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은 2,593위안부터 시작.

니오(9866.HK): 해외 수출 회복세로 유럽 사업 지속 확대 입장

- 2025년 12월 중국 내수 판매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CPCA가 1/9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니오는 12월 한 달간 총 750대(MoM +79%)를 해외로 수출. 니오는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으로 서브 브랜드 '파이어플라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높은 상업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
- 1/14 로이터에 따르면 니오는 중국-EU 간 전기차 무역 협상이 추가 관세에서 최저가격(가격약정)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럽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니오는 지난해 8월부터 유럽에서 인도가 시작됐고 이후 판매 국가를 확대 중이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모터쇼 2026에서 우핸들 버전 파이어플라이 EV를 공개하며 추가 해외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

샤오펑(9868.HK): 플라잉카 부문 글로벌화 추진 계획 발표

- 1/9 중국 현지 매체 가스구에 따르면 허샤오펑 CEO가 2026~30년 스마트 자동차/Robotaxi/로봇/플라잉카 등 사업 전반의 글로벌화 추진 계획을 발표. 2세대 VLA(시각-언어-행동) 기반 LLM을 탑재한 로보택시가 일반 도로에서의 공개 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며 2026년이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 샤오펑은 2026년 중 양산형 로보택시 3개 모델을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착수할 계획.
- 1/12 블룸버그는 샤오펑의 비행차 사업부문 자회사 Aridge가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IPO를 비공개로 신청했으며, 빠르면 올해 내 지분 공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 Aridge는 JP모건과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비행차 사업부의 상장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
- 1/12 샤오펑은 2026년 자동차 인도량 목표를 55만~60만 대로 YoY +28.1%~+39.7%의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4.58만~5.0만대 수준의 판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2026년 총 7종의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최소 3개 모델은 해외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

CATL(3750.HK): 원재료 공급사와 1,200억위안 규모 장기 계약 체결

- 1/14 CATL은 향후 LFP 배터리 핵심 원재료에 대한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원재료 수급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추진. 롱바이신에너지(688005.SH)는 2026년 1분기부터 2031년까지 CATL에 총 305만톤의 LFP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의 총 판매금액은 1,200억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4E	2025E	2024E	2025E			
텐센트(0700.HK)	1.8	19.7	21.0	13.9	10.7	14.9	14.0	39.7	(0.4)	2026-03-18
알리바바(BABA.US)	13.2	23.4	10.3	4.3	10.6	(11.9)	20.7	(34.5)	1.2	2026-02-20
징동(JD.US)	(0.1)	11.0	10.1	13.7	5.9	(42.4)	24.4	(39.7)	(0.4)	2026-03-06
트립닷컴(9961.HK)	(22.9)	11.8	19.0	16.1	13.8	86.5	(40.4)	86.2	0.0	2026-02-24
텐센트뮤직(TME.US)	(4.3)	18.2	14.1	15.1	12.7	66.2	(10.4)	45.8	(0.2)	2026-03-18
콰이쇼우(1024.HK)	6.5	13.5	24.9	12.0	9.4	17.9	15.9	46.0	0.4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0.9)	11.5	17.4	8.2	5.5	12.8	9.9	13.4	0.0	2026-03-27
샤오미(1810.HK)	0.1	20.7	18.7	28.6	19.9	83.4	4.0	79.6	0.2	2026-03-18
레노버(0992.HK)	0.3	8.9	24.3	13.4	8.0	14.9	10.6	7.4	0.0	2026-02-16
팝마트(9992.HK)	(4.0)	19.2	71.5	186.0	35.1	297.5	36.7	291.6	0.0	2026-03-26
미니소(MNSO.US)	(0.8)	16.7	21.9	25.0	19.4	(17.3)	45.8	287.7	(10.7)	2026-03-20
BYD(1211.HK)	4.8	21.4	16.4	8.3	15.8	(10.8)	34.1	(14.8)	(0.1)	2026-03-24
샤오펑(9868.HK)	3.1	-	(4.4)	92.9	43.2	적지	흑자	적지	(0.1)	2026-03-18
CATL(300750.CH)	(4.2)	24.2	23.4	16.5	25.0	35.6	25.5	35.6	(0.2)	2026-03-16
양광전력(300274.CH)	(2.1)	24.1	32.0	23.0	18.5	37.7	17.8	36.8	0.2	2026-04-27
북방화창(002371.CH)	1.9	51.3	19.6	31.3	26.7	26.0	34.2	26.2	(0.3)	2026-04-27
SMIC(0981.HK)	(3.4)	112.1	3.3	15.5	20.5	43.4	47.0	65.4	0.0	2026-02-11
해광정보(688041.CH)	1.4	178.6	13.8	59.1	52.4	74.9	57.0	63.3	2.7	2026-04-07
통푸마이크로(002156.CH)	1.8	50.1	7.8	14.5	14.2	78.0	28.3	88.9	0.0	2026-04-1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1.1)	35.4	20.4	49.7	65.8	49.1	74.4	44.6	0.0	2026-03-10
중지쉬창(300308.CH)	7.2	62.5	40.9	57.5	93.7	108.0	99.4	103.9	0.2	2026-04-20
포니AI(PONY.US)	(7.8)	-	(21.8)	16.1	35.7	적지	적지	적지	0.1	2026-03-25
위라이드(WRD.US)	(9.4)	-	(17.9)	70.0	102.6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4.5	64.3	7.1	51.3	44.8	흑자	53.4	흑자	0.1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1.8)	-	(46.0)	50.5	67.8	적자	적지	적자	0.0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5.5	80.2	15.0	16.9	18.7	14.4	21.0	17.0	0.0	2026-03-18
중신증권(6030.HK)	(2.0)	13.5	9.8	(14.4)	7.9	34.6	7.3	38.5	0.0	2026-03-26
평균	(0.5)	38.8	13.8	33.1	29.8	46.1	27.4	60.4	(0.3)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1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